

■ 그림 여행



**비, 증기, 그리고 속도**  
(Rain, Steam, and Speed c. 1844)

조셉 멀로드 윌리엄 터너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 - 1851)

캔버스에 유채 91 cm x 121.8 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19세기 영국 화가 조셉 멀로드 윌리엄 터너는 풍경화의 대가였다. 15 세에 영국 왕립 아카데미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할 정도로 일찍 천재성을 보였던 그는 보이는 대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정통 풍경화로 시작해서 점차 자연의 웅장함이 거의 추상적인 느낌으로 화면을 지배하는 독특한 경지를 이루었다.

터너는 유화를 수채화처럼 그렸다. 기름에 섞어 쓰는 유화 물감을 최대한 얇게 배합하여 투명한 느낌이 나게 했으며, 덧칠을 하는 유화의 특성을 무시하고

수채화를 그리듯 최대한 빠르게 그렸다고 한다. 그 결과 터너의 풍경화는 그 풍경이 보여지는 순간의 분위기를 그대로 포착한다.

여기 그림 속에 보이는 풍경 속에는 강물 위에 다리가 있고 그 위를 증기 기차가 지나가고 있다. 비가 내리고 있으며 빗방울은 바람에 흩날려 뿌연 수증기처럼 대지를 감싼다. 자유로운 붓질은 광대한 자연의 기백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화면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는 하늘로 구름과 바람과 빛과 물방울이 그대로 한 편의 심포니를 이루며 퍼져 나간다.

터너는 영국의 대표 화가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했지만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그 위에 상류 계급 출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살았으나 사생활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 일종의 기인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인간 관계에 연연하지 않았고 냉정한 면모를 보였다고도 한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이 그림을 실제로 보면 자유롭고 거칠 것 없는 그림의 기운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세히 보면 강 위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강변에 조그맣게 그려진 사람들도 보이는데 어쩐지 전혀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개인적인 삶의 드라마에 무심했던 터너의 성향이 자유분방한 화풍 속에 자연을 경외하며 숭배한 그의 그림세계를 가능케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터너의 작품들은 그의 이름을 딴 별도의 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 서늘한 기상이 서린 그림들의 아우라가 대단했다. 그 안에서 조용히 그림을 보다 보면 잡다한 일상사가 잊혀지고 마음이 초연해지는 느낌이 들어 오래 머물렀었다.

김 동백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모시는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호섭**

LA/OC/San Bernardino/Riverside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 장례 인도해드립니다.



**이호섭 장의사**  
FDR 4701  
**시신 방부사**  
EMB 9702  
**장례보험**  
4287740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 최고급 식당에서  
책임지고 모십니다.  
비교 확인 하십시오.

매장, 화장, 장례보험  
풀러턴 소재 스킷 맥콜리 패밀리  
장의사(FD 1593)와 함께 일합니다.

개인 상담, 단체모임(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해드립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장의사,  
시신방부사, 로즈힐 묘지 근무.

**C.714.951.2520**  
**O.714.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러  
**쿠니 사시미 횡집**으로 오세요!

To go  
환영



활어 사시미 콤보 (광어+도다리)



모듬 사시미 콤보 (광어+연어+참치+빙어+문어)



이벤트 특가  
전복 / 멧게 / 해삼 \$50



우니 사시미 \$40



Tuna(Toro) Special \$40

**714.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KUNI**  
쿠니 사시미 횡집

단체 예약 환영  
**Opening Hours**  
Mon-Sat: 3PM-12AM  
Sun: 3PM - 10:30PM